

애경, 삼성물산 유통부문 인수

인수금액 4700억원 ... 앞으로 2년간 삼성플라자 브랜드 사용

애경그룹은 2월15일 삼성물산의 유통부문을 47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애경그룹은 앞으로 1-2개월 안에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플라자 등 유통부문을 넘겨받게 된다.

애경그룹은 삼성물산이 매각조건으로 제시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를 수용키로 하고 인수시점부터 2년간 삼성플라자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데 합의했으며, 삼성물산도 삼성플라자가 애경그룹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.

애경그룹은 2006년 10월27일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인수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11월6일 삼성물산 유통부문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1월23일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 바 있다.

애경그룹은 현재 서울과 수원에서 2개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으며, 2009년 9월에는 평택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.

면세점으로는 AK면세점 인천공항점, 김포공항점 등 2개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에서 1조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애경그룹은 2010년까지 유통부문에서 매출 3조원을 달성하고 백화점 7개점, 면세점 3개점을 운영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2/16>